

취업자수 두달째 20만명대 ↑... 체감 실업률은 '글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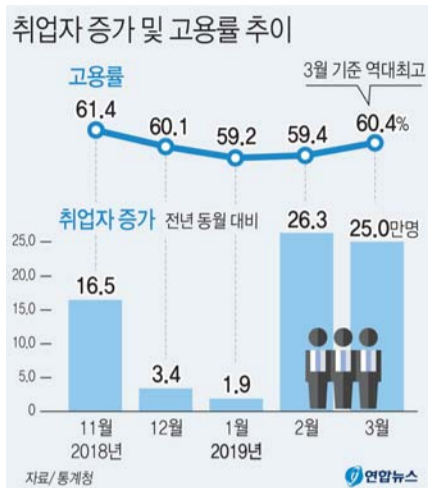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 총 2680만명
2월 26.3만명, 3월 25만명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고용 부진 속에서도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하며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지만 체감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어 고용여건 개선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올 2월 26만3000명이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사업(17만2000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3000명·7.7%), 농림어업(7만9000명·6.6%)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하지만 제조업(-10만8000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000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000명·-4.5%) 등에서는 감소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협력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변환, 전기장비 등"이라며 "다만 지난 1월부터 감소 폭이 축소하고 있어 협력이 좋아진다면 개선 기미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34만6000명), 50대(11만1000명), 20대(5만2000명)에서 증가했지만, 40대(-16만8000명), 30대(-8만2000명)에서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노인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증가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에도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42만3000명(3.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1만4000명(-2.4%), 일용근로자는 2만9000명(-2.1%)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40대만 1년 전보다 하락했고, 60세 이상, 50대, 20대에서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78.0%로 3월 기준으로 2013년(77.5%)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000명)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는 9개월 만에 줄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실업률 하락은 작년 3월 있었던 지방

직 공무원 접수가 3월 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접수자 일부가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000명(0.7%)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움'은 18만3000명 늘어난 200만명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6만3000명 증가한 53만8000명이었다.

정 과장은 "고용률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상승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마이너스이지만 감소 폭이 축소하고 있어 1~2개월 지켜보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최상화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올 추경 7조 넘지 않을 것"

"성장률 2.6~2.7% 도달 노력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에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경을 편성할 것이며 재정 보강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7조원 이하가 적절한 규모냐는 질문에는 "선언적으로 몇조원 하겠다고 정해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규모를 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면서도 재원 측면을 같이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홍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저감기술과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 방안을, 경기·민생과 관련해서는 수출 대책·일자리 정책·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의 한 방편인 적자 국제 발행은 가능한 최소로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박삼구 복귀안해... 금호, 자구계획안 제출"

박 회장 일가 금호고속 지분 담보
산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KDB산업은행

금호그룹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하며 박삼구 회장의 경영복귀는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은행은 10일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에 따르면 먼저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 일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에

는 박 회장 부인이 보유한 지분 13만 3900주(4.8%)와 금호타이어 담보지분 해지시 박삼구, 박세창 보유지분 담보(42.7%)를 포함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 기간(3년)간 이행여부도 평가받

는다. 부여된 목표 달성기준에 미달할 경우 산업은행 측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대주주(개인 대주주 및 금호산업)는 이의 제기 없이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호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없으며 아시아나항공 회사사 등 보유자산을 포함한 그룹사 자산 매각을 통해 지원자금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향후 금호그룹 측이 제출한 자구계획 검토를 위해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펀드 순자산 585조... 전월비 0.3% 증가

채권형 펀드와 실물자산 펀드에 돈이 몰리면서 3월 말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월 국내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584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8000억원(0.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자산 선호와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에 힘입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2조4000억원(2.2%) 증가

한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2조2000억원(2.2%) 늘어 전체 순자산은 103조원을 나타냈고, 해외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1000억원(1.9%) 증가하면서 8조원을 기록했다.

또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81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000억원(1.7%) 늘어났다.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은 2조5000억원(3.5%) 증가한 74조4000억원이었

금투협, 3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채권형펀드 순자산 2.4조, 2.2%↑

고 혼합자산 펀드 순자산은 1조9000억원(7.5%) 늘어난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간접펀드 순자산과 파생상품펀드 순자산도 각각 1조1000억원(3.8%), 7000억원(1.5%) 증가했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증시 하락과 더불어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순자산이 줄었다.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8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홍역 확진자 129명... "유행 걱정수준 아냐"

대부분 베트남 등 해외서 감염

전국에서 홍역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며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홍역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며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국 대유행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발생한 국내 홍역 확진자가 지난 8일 기준으로 129명

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은 2014년 부터 한해 홍역 감염자가 2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에 따르면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유입된 환자들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 2010년 인천에서 111명, 2011년 경남지역 4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442명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국외 유입 관련 사례들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홍역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 역시 프랑스 등의 유럽과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탓이 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별 환자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감염됐다. 확진자들이 방문한 해외 국가는 베트남(16명), 필리핀(10명), 우크라이나(2명), 태국(2명), 유럽(1명), 대만(1명), 마다가스카르(1명), 캄보디아(1명), 키르기스스탄(1명), 우즈베키스탄(1명) 등이다. 일본은 현재 홍역 확진자 발생이 전국 대유행 등을 걱정할 정도의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